

미꾸라지 잡고 매실 따고...마을 전체가 생태학습장



유기농 생태마을이 농촌 관광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유기농업의 거점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담양군 수북면 횡덕마을을 찾은 도시 주부들이 유기농 쌈채소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입지를 다진 전남은 2010년부터 유기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농업을 생명식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04년부터 5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인증면적 기준으로 전국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1차년도 5년동안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인증면적은 49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무농약이 64배나 증가하는 동안 유기농은 상대적으로 낮은 14배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유기농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다.

전남도는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곧바로 유기농 생태마을 제도를 도입해 유기농업의 거점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폈다. 유기농 생태마을

■ 전남 유기농생태마을 현황

마을	참여농가	인증 작물	면적(ha)
광양 다압 관동	67	매실·밤·단감	160
담양 대덕 시목	22	단감·벼	35
무안 몽탄 내대	96	벼·콩	40
함평 대동 홍지	37	벼·양파	31
담양 수북 횡덕	41	쌈채소·멜론	44
장성 삼계 생촌	47	벼	31
구례 문척 토금	57	고사리·단감	48
영광 법성 산하리	23	벼	26
곡성읍 신기	50	벼·전작물	46
신안 지도 외양리	40	벼·잡곡류(수수 등)	121
나주 공산 북용	31	벼	29
광양 다압 고사	35	매실·밤·배·감	155
보성 결백 남양	27	벼	21
화순 도곡 평리	78	벼	44
무안 현경 기미	40	벼·고구마·배추·양배추	64

수확 기쁨 제공하고 가공품 판매로 수익 잠잠

소득 안정·귀촌 유인 등 잘사는 농촌 성공모델

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청정 유기농 농업단지다.

전남도는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 체험장으로 활용해 농촌관광의 명소가 만들고 주민소득도 올린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도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이 명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한다는 기준도 정했다.

우선 마을당 참여 가구수는 20호 이상이어야 하고 경지면적도 20ha 이상으로 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기농 단지로서의 파급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경지면적의 50%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기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2억원(마을 부담 4000만원 포함)을 지원해 유기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과 현장체험 및 판매장 시설 설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유기농 생태마을이 유기농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곳은 모두 15곳이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자작 요건을 갖춘 마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전문가들의 현장실사를 통해 매년 5곳씩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 제1호인 광양 관동마을은 67 농가가 참여해 전체 경지면적의 76%인 160ha를 유기농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전국적인 매화축제 장소로 유명한 청매실농원과 5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매실 수확체험은 물론 가공품 판매로 잠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같은 해 지정된 담양군 대덕면 시목마을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사례다. 여름에는 우렁기 미꾸라지 잡기와 가을이면 단감 따기, 배추기 잡기, 고구마 캐기로 농촌 생태관광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과 임경숙씨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유기농 생태마을사업은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계 복원은 물론 공동체 의식 고취, 생산비 절감, 소득 안정, 젊은층의 귀촌 유인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안군 몽탄면 내대마을

계약재배로 판로 안정...우렁 논 등 체험 다양

전남의 15개 유기농 생태마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무안군 몽탄면의 내대마을이다.

2010년 전남도의 유기농 생태마을 제3호로 지정된 곳으로 참여 농가(96호)나 벼 재배면적으로 볼 때 가장 규모가 크다. 남천·화산·양동마산·한재·봉화·총지마을 등 6개의 자연부락이 행정구역상 '내리'와 '대치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

하면서 앞 글자를 따 '내대마을'이란 이름을 붙였다.

내대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기농 인증비중이 가장 높고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40ha로 이 가운데 75%인 30ha가 유기농이다. 벼 농사가 주 작물인데 우렁이농법을 실천하고 있고 친환경쌀 도정공장을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 대기업인 대상 계열사와 계약재배를 맺

고 기능성 쌀을 브랜드화 해 전국망을 갖춘 유기농 전문매장인 초록마을에 공급하고 있다. '한알의 약속'이란 브랜드로 팔리는 내대마을 쌀은 특수품종인 영인벼로 발육을 돕는 라이신 함량이 일반쌀보다 11%나 많아 '키즈의 쌀'로 유명하다. 마을에 자체 교육장을 갖추고 소비자를 초청해 벼 논에 우렁이 낚기 등 직접 친환경을 체험으로 할 수 있는데다 2km 근처에 약곡마을이란 한옥마을이 있어 한옥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장기광 마을 대표는 "우리 마을의 유기농 쌀은 40kg들이 한 가마에 7만원선으로 일반 벼에 비해 1.6배 정도 높다"며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공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영국 에딘버러 FESTIVAL 최고의 작품 선정 ★★★★★
전세계 관객의 심장을 출추게 만든 공연 !!

광주 CBS 51주년 기념
1961-2012

비보이를 발레리나

오리지널팀
광주앵콜공연

3.17(토) 4시, 7시 / 18(일) 2시,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 CBS 문의 062) 376-4488

